

# 크레이그 키너 박사, 로마서, 강의 13

## 로마서 12:14-14:1 서론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2:14-14:1, 서론에 관한 세션 13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해 왔으며, 어떻게 새롭게 된 생각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외인을 사랑하고 모든 외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12, 14절, 그리고 17절부터 21절). 그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복 금지를 주장한 고대 사상가들이 있었지만, 예수와 바울은 단순한 보복 금지 그 이상을 추구했습니다.

당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단순히 저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박해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으며,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등을 맡기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여기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당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주를 행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신은 악의적인 의미로 저주를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은 바보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불러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저는 그러한 장소 중 일부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것 중 하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말은,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영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하나님께 그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할 때라고 말할 때 많은 압박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주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12장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으로 여기는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공개 증언에는 모두가 동의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는 특정 행동이 좋고 특정 행동이 좋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런 일을 꼭 하세요. 실제로 그러한 것 중 일부는 우리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화에 있을 수 있지만 문화는 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악을 갚지 않는다는 이 생각에 대해 사람들은 종종 그것을 보고 감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을 갚지 않아서 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악을 갚지 못하는 데에는 강함이 있습니다.

스토아학파는 저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저항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당신이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당신 자신뿐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할 수 없고,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일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스토아학파의 견해였습니다. 유대인 현자들은 때때로 비저항을 촉구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광신도는 아니지만 때때로 비저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레위기 19:18, 이웃을 사랑하고 악을 갚지 말라(레위기 24:29)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다리나이다(잠 20:22). 원수를

사랑하고 적을 축복한다는 생각은 나에게 때때로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축복하는 것조차 사랑하는 것보다 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적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기적에 관한 책을 쓴 후, 인터넷에 무신론자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일부 무신론자들은 단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는 매우 비우호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매우 비우호적인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무신론자들은 키너가 너무 멍청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 책은 당신이 논증을 읽으면 내가 그런 것들을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이해했고 그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북부 나이지리아에서 본 어떤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보코하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일부 지하드주의자들이 기독교인과 온건파 무슬림을 살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중에 일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드주의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도 없고 시체도 있는 채 사흘 동안 포위된 교회에 갇혀 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는 그곳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여름방학 세 번을 보냈습니다.

저는 지하디스트를 사랑하는 데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전히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 경찰의 노력, 때로는 군사적 노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적어도 그것은 내 의견이다. 저는 지금 평화주의에 빠져들지 말고 그냥 전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는 전쟁이 끝난 후 아내와 함께 코트디부아르의 목회자들에게 평화와 화해에 관해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하디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민족갈등, 지역갈등이었죠. 하지만 나는 이번 비행으로 대서양을 절반쯤 건너왔습니다. 아내는 자고 있었고 나는 혼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권리를 가르치고 적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난 그냥, 그들에게 화가 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먼저 처리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부르려면, 나도 역시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위선자가 되어 메시지를 가르칠 때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그로부터 몇 년 전, 일부 사람들이 샤리아 법을 요구하며 카두나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기에 일부 기독교인들은 남부 카두나 주 쿠프와 바산에서 와서 평화로운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 전체에 적용되는 샤리아 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자동 무기 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해 총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카두나 주 출신의 학생 중 한 명이 이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그의 아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사촌이 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내가 아직 살아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의 이름의 영광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형제들이 살아 있는지 몰랐던 제 학생인 선데이 아궁(Sunday Agung)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짓을 한 이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 없이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풀러에서.

그는 현재 나이지리아 중부 지역에서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12:18 바울은 모든 사람과 화목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화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것이 관계적 평화이다. 그러나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12:19, 복수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글썄, 그것이 당신에게 달려 있는 한, 때때로 우리는 그것을 도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한 학교의 동료 교수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몇몇 교수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신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단지 악마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악마에게는 옹호자가 충분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악마의 법정에서 남겨두고 결코 그것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신학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니다.

내 기억으로는 그는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실제로 천 명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그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와 나는 실제로 좋은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또 다른 교수가 있었는데, 그가 학생과 학생들에게 말하고 있던 내용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는 수업에서 완전히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분야가 아니라 내 분야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저에게 적어도 다른 면을 보여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라도 너희와 화목하게 하실 수 있다는 잠언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인은 오염된 우물과 같다는 속담의 말씀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마도 그 비교를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결국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도 괜찮게 되었는데, 그것은 제가 기도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 복수하지 마세요.

항상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여지를 남겨두라(19절). 즉,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느니라.

만약 당신이 스스로 복수한다면 그것은 마치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글쎄, 만약 당신이,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볼 수 있도록 자선을 베푸는다면, 당신은 마치 신이 지켜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이미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도록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자리를 남겨두십시오. 그는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합니다.

글쎄요, 그는 신명기 32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10장과 19절, 그리고 15장 10절에서 그 내용을 다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장이나 이전 장에서 그 내용을 몇 번 인용할 것입니다. 이미 10시 10분, 19시, 15시 10분에 인용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자리를 남겨 두라. 나는 그가 다음 구절에서 그 지점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를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12:20-21에서 말하는 방식은 잠언 25:21-22을 인용한 것입니다.

적이 배고프면 먹이를 주세요. 적이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두는 것입니다.

글쎄, 사람들은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더 좋게 들리는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마치 당신이 실제로 그들을 더 문제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요점은 정말로,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기고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감을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하지 않고, 계속 악하고, 적대적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그들 위에 숯불을 쌓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것에 대해 더 나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의 목표는 원수를 친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나는 적이었던 사람들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전쟁 중에 피난민이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 간첩으로 추정되어 포로로 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되돌아보면 아마도 실제로는 간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간첩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하나 이상의 언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위해 번역해야 했기 때문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속해 있던 프랑스어권 국가였습니다.

그녀는 이중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사실은 5개 국어를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번역해야 했습니다. 글썄요, 그에게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했지만 여전히 그가 스파이라고 생각한 후에 그들은 그를 구타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를 보고 그가 배가 고프자 그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이 찾아오면 그들도 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음식의 일부를 희생하곤 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할 방식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녀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강한 감정과 강한 의견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우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한 경우에 대한 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도 많은 예가 있습니다. 때때로 사이비 기독교인들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의 이름이 인간의 수단으로 가장 잘 보호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에 관해 우리가 들은 내용을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7절. 음, 반드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네로 치하에서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이 시점에서는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는 여전히 세네카와 부루스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장부터 7장까지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외부인과의 관계에 관한 이전 장의 14절부터 21절까지의 개념이 계속됩니다. 국가에 대한 복종은 고대에는 일반적인 주제였습니다. 종종 철학자나 도덕주의자 연설가가 주제를 다룰 때 가족 관계나 다른 관계와 함께 다루어졌습니다 .

Stoics와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유대 민족과 같은 제국 내 소수 집단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곧 로마에 대항하여 반란을 주도할 열심당이나 다른 혁명가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로마의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글썄, 우리는 여기서 나쁜 평판을 얻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이 더 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쓸 때 국가의 자비를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원칙이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악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명령에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치가 교회의 많은 부분을 점령한 독일에 있다면 나치를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디트리히 본회퍼처럼 고백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닙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옹호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는 당신이 우간다에 있었고 이디 아민이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칼 바르트(Karl Barth)와 같은 일부 신학자어나 구원 역사를 다루는 스위스 신학자 오스카 콜먼(Oskar Coleman),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 구절을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에 대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에 이 구절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이것은 국가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국가가 무엇이든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고 국가에 대해 적절한 존경심을 보여야 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메시지입니다. 국가가 중국이든, 국가가 러시아이든, 국가가 미국이든, 볼리비아든 칠레든, 어떤 국가이든 우리가 그 나라의 시민이라면 우리 정부를 존중해야 합니다.

설정. 스캔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유대인 공동체는 소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분명 소수였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지도자 중 일부는 49년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지 10년도 채 안 된 해인 64년에 치명적인 거짓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네로가 아직 기독교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평판을 유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평화를 누리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풀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유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66년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는 유대와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참된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정이 단지 지혜로운 것은 아니지만, 이 설정은 확실히 이런 종류의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정부의 이점 중 일부와 조직화된 사회의 일부 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대한 주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구약성서에서 이에 대해 읽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왕의 마음을 돌리십니다. 사실, 우리는 딸이 우리와 함께 이민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자체는 로마인의 불의를 나타냈습니다.

내 말은, 십자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불의한 행위였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로마 제국에 불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직후인 2세기에 아마도 고대나 동양의 법률 모음집에 자주 기록되었던 것처럼 로마법에도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처벌은 당신의 사회 계층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으로 부자에게 유리했습니다.

부자들은 필요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부자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는 모두 부유층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로마 통치는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무정부 상태나 더 나쁜 정부보다 더 많은 정의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고린도에서 그를 보호해주었습니다.

이 편지 이후에도 나중에 그를 보호할 것입니다. 로마 통치는 제국 내에서 무역과 의사소통을 위한 넓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화된 사회에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의무 중 하나는 세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원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국의 재산세는 약 1%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두세가 있었는데, 이는 당연히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지방세도 많이 내셨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무거운 세금과 관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운송되는 곡물이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는 더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입의 용도는 뼈아픈 지방행정, 아주 작은 규모의 지방행정에 사용됐다. 그것들은 로마의 도로로 사용되었고 군대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모두가 그것들로 인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정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군대에도 사용되었으며, 과거에도 그렇게 사용되었고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유대 반란에서도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들은 황실 사원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이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가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은 세금에서 그 금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불복종을 위한 자리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몇 분 전에 극단적인 경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 소수 기독교 운동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정부에서 그렇게 할 발언권이 없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기 얼마 전에 로마에서 일부 세금이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추방되었다가 최근에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 과 같은 비시민들에게도 로마 시민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공물. 그래서 그는 6절에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Paul은 그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내 생각에 이것은 공통된 주제였지만 그 언어는 아마도 특히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반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다면 카이사르의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를 들어, 이 동전에는 카이사르의 이미지와 제목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7절에서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황제의 형상에 제물을 바치고 향을 바쳤습니다. 유대는 그것에서 면제되었다.

그들은 단지 황제의 건강을 기원하고 황제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만 했을 뿐입니다. 혁명가들이 성전을 점거했을 때는 많은 것을 용서받을 수 있었지만, 황제를 대신하여 제사를 중단한 것은 로마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회당에서는 국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이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는 아마도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투표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우리가 속한 국가의 복지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이 유배된 곳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먼저 베드로는 우리를 외국 땅에 유배된 자들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내세에 속해 있으나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며, 나그네로서 우리도 사는 세상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8절부터 10절까지에서 윤리의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윤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12:9부터 13:7까지가 절정에 이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로마서 전체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로마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둘러싸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핵심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것은 자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권위 있는 자를 존중하고, 이웃, 심지어 원수라도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웃 사랑으로 요약됩니다.

때때로 그러한 것 중 일부는 세부적인 문제에서 서로 충돌하지만, 그 마음, 즉 사랑의 원리는 우리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때로는 노력해야 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서로 맞추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더 큰 규모의 일부 것들을 알아내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일부 유대인 교사들, 그리고 실제로는 이보다 몇 년 전인 예수 시대에 우리는 이에 대해 유대 자료와 복음서에서 읽었습니다. 복음서는 유대 자료이지만 다른 유대 자료와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비기독교 유대인 소식통은 물론 유대 기독교 소식통까지, 이것이 이 시기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큰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가장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큰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약 한두 세대 후에 Rabbi Akiba는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예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에서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이 두 번째가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유대 해석학의 게셀 하샤바 원리를 통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두 개의 텍스트.

그들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Vaya havta , 당신은 사랑할 것입니다. 글썄요, 고대에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스타일과 같이 그것이 중심 가르침이었던 고대의 유일한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서는 이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새 계명으로 삼은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2장에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것이 모든 것을 요약한다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재검토합니다. 이것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음, 그것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일치하는 법의 요약으로 기능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에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지키면 이것이 율법의 전부입니다. 그와 비슷한 말을 한 또 다른 유대인 교사가 있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생각엔 힐렐이 매우 존경받는 현인이었던 Tractate Shabbat의 탈무드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가 여기서 말한 내용에 대한 전통이 모두 올바르게 보존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힐렐은 한 발로 서서 토라 전체를 가르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였습니다.

이것이 토라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과 1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법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의 핵심입니다. 미가서, 신명기 및 기타 본문은 때때로 율법의 핵심에 대한 요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추종자들, 즉 바울부터 야고보까지의 기독교 운동은 사랑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널리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이 이보다 몇 장 전에 말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13:8,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고대에는 부채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의 개인 대출은 보통 12% 정도의 이자를 받았지만, 내가 언급한 것처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 사람이 그들이 절박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시 전체에 50%의 이자를 부과했습니다.

고대에는 부채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에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낙담합니다. 할 필요가 없으면, 잠언 22:7에서, 빌린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빛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보답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랑이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는지에 대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오계명 중에서 출애굽기 20장,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웃에 대한 구체적 계명인 십계명의 다섯 계명 중에, 여러분의 외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모두 통할 수 있는 계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에.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미하는 바를 예시하기 위해 10계명 중 4개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언급한 13:11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청중을 불러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고대 작가들은 종종 잠을 비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물론 문자 그대로도 사용했지만 종종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한 한 가지 방법은 죽음을 언급하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그는 그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또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경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더 넓은 문화뿐만 아니라 많은 장소에서 사용되는 야간 경비원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36에서 그는 그것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부터 8절까지에서 이 단어를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가 깨어 있고 냉정한 상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일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취하거나 자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날은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고, 경계하고, 준비하십시오.

말 그대로 신체적 불면증을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경계심을 갖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빛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 52장 1절의 “깨어라, 깨어라, 시온아, 힘 있는 옷을 입으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곧 언급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13장보다 훨씬 일찍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비록 로마인들이 뒤집을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바울의 권고를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바울은 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밤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흥청거림, 술취함, 성적 과잉을 포함한 야간 행위.

그곳에서 그는 야간 활동, 문제가 되지 않는 수면, 술 취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가까워졌습니다. 그 날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는 빛을 입는 빛과 낮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빛의 갑옷, 믿음과 사랑의 흥배,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구원이 가까웠으며(13:11),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9에서 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로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글썬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분명합니다.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그가 깨어 있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 말은, 지금은 예전보다 시간이 늦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원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을 현재나 과거, 즉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관련하여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때때로 미래를 위해서도 사용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장 9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진노는 로마서 2장 5절에서 진노의 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 심판 날에 대해 말한 것과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역사를 통틀어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5:10,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장 9절과 13절에 또 미래의 수동적인 내용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동일한 미래 아이디어, 고린도전서 3:15,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는 이 사람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신은 멸하고 그 영은 심판 날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디어는 궁극적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십니다, 13.12. 글썄요, 그가 깨어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 이미지는 실제로 어느 정도 들어맞습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깬 후에는 옷을 입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유대 농부들은 실제로 잠을 자지만, 대부분의 유대 가난한 농부들은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자곤 했습니다. 물론이고, 그럴 때는 겹옷을 입곤 했습니다. 사실, 날씨가 추우면 겹옷을 입고 자고 담요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일어나서 옷을 입으십시오.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도 이 형상이 있습니다. 깨어나 시온아, 옷을 입으라. 미덕으로 옷을 입거나 긍정적인 것으로 옷을 입는다는 이미지는 고대 문학의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으며 구약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의 모든 내용이 영어 번역본에는 없지만 그리스어 번역본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 34절에서는 영이 기드온에게 인도하도록 옷을 입혔고, 대상 12:18에서는 영이 아마사에게 어떤 의미에서 따르도록 옷을 입혔습니다., 다윗에 대한 충성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대하 24:20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성령이 옷을 입히사 예언하게 하신지라 일부 다른 유대인 텍스트인 Pseudo-Philo 27:9-10에서는 영이 Kinas에게 전투용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는 Pseudo-Philo의 성서 고대 유물입니다. 요점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14절에서 그는 그리스도 자신을 입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15장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갑옷의 일부 이미지를 사용하여 에베소서 6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입었고, 그렇게 해서 빛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글쎄, 갑옷의 이미지. 유대인들은 종말의 전쟁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는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마도 정확한 이미지와 관련하여 여기서 더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전투, 열정에 대한 전투, 거짓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투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갑옷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8을 읽어보고, 좀 더 발전된 방식으로 나중에 나오는 에베소서 6:10-18장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약간의 추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범위를 13~17로 좁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지를 항상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는 믿음의 흥배가 있는데,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의의 흥배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로마 군대는 대열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무적이라고 여겨졌는데, 앞에 직사각형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군했고, 거북이 진형을 사용했다면 뒤의 두 번째 줄은 직사각형 방패를 세웠을 것입니다. 방패가 자신의 머리와 앞에 있는 사람을 덮도록 하여 화살이 방패에 쿵쿵 박히도록 하고, 불화살이 있으면 로마인들은 화살이 그냥 나가도록 방패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Paul은 여기서 이미지를 많이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그것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또한 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술취한 파티를 즐길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때 비밀스러운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밤의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대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것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만큼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며, 유대 민족의 돌이키는 일, 아마도 그가 곧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일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 음,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주권적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감동시켜 여러분의 마음을 일깨우고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깨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다는 것, 영원에 비추어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을 갖는다는 것의 일부입니다. 글쎄요, 관계의 일부는 바울이 제시한 이러한 일반적인 진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사람들이 교회와 영역에서 싸우고 있던 문제보다 더 많은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하면 우리 회중의 사람들은 '그래, 그거 좋은 말이구나'라고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그만 두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 같죠? 그렇게 할 때 실제로 누군가를 불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에 있는 신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부차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고,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고, 우리도 계속해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방법과 같은 일차적인 문제가 이차적인 문제를 안내하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거나 환영하는 것은 확실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레몬서 17장을 제외하고 바울은 자신의 편지에서 받거나 받다라는 의미로 *pros lumbano*를 세 번만 사용했는데, 그 세 번이 모두 이 부분에 있습니다. 14:1, 그는 섹션을 엽니다. 14:3은 여전히 해당 부분의 시작 부분에 있으며, 15:7에서는 해당 부분의 끝 부분에서 실제로 장이 끝나는 부분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일의 음식 관습에 대한 그의 논의의 틀을 잡습니다. 즉, 좋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의 핵심이 필요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환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고전 15:7,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환영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환영하라. 그리고 15:8부터 12절까지의 구절들은 서로 환영하는 본문, 특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문이다. 그러므로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의 요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로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구원의 역사적 차원이 있지만, 우리의 분열, 특히 민족적, 문화적 분열이 무엇이든 우리는 서로를 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해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근

누군가가 저에게 말했듯이 저는 인종 화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종 화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화해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서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 장에서는 음식 관습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의 대부분이 이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음식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 종파 중 피타고라스 학파는 환생을 믿었기 때문에 고기를 기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고기에도 영혼이 있고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으며 콩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콩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콩을 먹은 후에 고기가 좀 무겁고 소화하기 어렵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요. 그래서 콩을 먹으면 나중에 가스가 나올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나오는 콩의 영혼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이것을 너무나 강하게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일부 피타고라스 학파를 박해할 때 어떤 경우에든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도망치다가 도망치다가 콩밭에 이르러 콩을 지키기 위해 무작정 목숨을 끊는다.

이것이 바로 피타고라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독특한 음식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특한 음식 관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관습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의 관습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리비아인과 인디언들은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독특한 관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피하세요. 그것은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레위기 11:7).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들, 이집트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열렸습니다. 다른 고대 자료에 따르면 페니키아인, 아마도 시리아인이 유대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때때로 이방인 작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시리아인으로 여겼습니다. 이전 시대에 히타이트 사람들은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난민이었을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매우 부정한 돼지를 경험했다고 말하겠습니다.

유대인 카슈루트. 나는 여기서 문제가 유대인 카슈루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카슈루트, 유대 코셔 법, 깨끗한 음식으로 간주되는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간주되는 음식. 마카베오 시대에 유대인들은 코셔를 지키느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세계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뚜렷한 표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은 그것 때문에 널리 알려졌고 조롱당했습니다.

예를 들어, Juvenal이라는 풍자가인 지도자는 그런 점에 대해 그들을 조롱합니다. 로마에서는 그들의 관습을 존중하는 일부 이방인들과 그들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관습에 대해 매우 단호했기 때문에 글썽,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르고 돼지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널리 알려지고 조롱당했습니다.

대부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러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필로는 필로 이전에 작성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문서인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식품법을 우회하지만 여전히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을 이행하려면 문자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알렉산드리아에 필로보다 더 자유주의적인 유대인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지키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문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은 카슈루트에 관한 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거룩함이나 성별됨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 관습은 이스라엘을 다른 음식 관습을 가진 다른 나라들과 효과적으로 분리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명은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문화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우리는 잠을 자지 않고, 험담을 하지 않으며, 성적인 농담에 웃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문화적으로 분리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카슈루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2절에 채소를 언급하고 21절에 포도주를 언급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의 음식 관습을 언급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확실히 로마에는 코서 정육점들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로마에서는 코서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에 관해서는, 음, 이미 이교 신에게 전제로 붓지 않은 한, 그 포도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할까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과장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기분 상하게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 정도까지 가야 하고, 돼지고기와 야채를 선택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고 그것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돼지고기를 먹는다면, 그러면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채만 드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 하십시오. 비록 당신이 단지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는 환경에서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른 것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 있을 때 때때로 급진적인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어쨌든 고대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고기를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와 고린도의 축제와 그와 같은 장소에서 축제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후에 분배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런 일을 다루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에서는 매우 강력하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일부 유대인 죄수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고 음식 선택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견과류와 무화과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유대교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유대인의 음식 관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내 생각엔 정말 분명한 것 같아.

14:14, 그는 정결함과 부정함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매우 눈에 띄게 유대인 언어입니다. 또한 문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환영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4:1과 3, 그리고 15:7부터 12까지. 그리고 또한 전체 편지. 내 말은, 당신에게는 유대인-이방인 문제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여기의 주요 배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말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관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록 거기에서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 때문에 그의 주장이 조금 달라지겠지만, 그는 8장에서 서로 실족하지 말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는 10장의 끝에서 다시 그 원칙을 언급합니다. 논쟁. 그 사이에 그는 신학적인 논증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 사이에 그는 9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예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10장에서 그는 신학적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마치 그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여러분이 고린도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이 그들을 죽였으니 아마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0장 20절에서는 이들을 귀신 곧 우상 뒤에 숨은 영이라 말하며 너희가 주의 식탁 곧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주님의 세라 피스 상이나 우상의 신전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회에서는 먹고 마시기 전에 신에게 신에게 술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학적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회학적 논증을 제시하고 신학적 논증의 틀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 약간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단지 사회학적 주장일 뿐입니다.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만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누군가를 걸러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음식 관습 중 하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미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에서 이방인들은 유대 민족을 업신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이 문제를 더욱 완전하게 언급할 것입니다. 그들의 관습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는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칭호일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아마도 강한 사람이 사용하는 칭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강한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염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그들을 걸러 넘어지게 하는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아니면 당신의 친구이고 그들이 믿기를 바라는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그들을 실족케 할 것 같으면 너희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겠느냐? 하지만 이것 좀 보세요.

비틀거리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음식을 좋아하지 않고, 당신 같은 음악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걸러 넘어진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 용어는 이미 집회서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14:4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동일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에게 그들이 서거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걸림돌은 11장과 22절에 나오는 떨어진 가지처럼 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확실히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존중해야 하며 그들의 관행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의 방식을 그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로마서 14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로마서 12:14-14:1, 서론에 관한 세션 13입니다.